

가을 가뭄... 애타는 들녘

700mm 이상 비 안오면 내년 농농사도 타격

극심한 가을가뭄으로 전남도내 저수지가 바닥을 드러내고 있어 가뭄이 지속될 경우 겨울배추 등 밭작물 피해는 물론 내년 봄 영농차질마저 우려된다. 한국농촌공사 전남지역본부와 전남도내 일선 시·군 등에 따르면 올해 전남지역 7~9월 평균 강수량은 261mm로 지난해 같은 기간 943mm와 비교해 3분의 1수준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다.

적이 불가피한 실정이다. 농촌공사 관계자는 "9월 저수율이 70%대가 남아야만 내년 영농에 대비할 수 있는데, 올해는 절반에도 못 미치는 곳이 많다"면서 "내년 2월까지 최소 700mm 이상의 비가 내리지 않을 경우 내년 농사에 큰 타격이 예상되는 만큼 하천 등에 보를 쌓고 물을 확보하는 방안 등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전남도내 시·군에서도 극심한 가뭄으로 인한 농작물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다양한 대책을 펴고 있다. 평균 저수율이 39%에 불과한 영암군의 경우 가뭄 피해 우려 지역에 대한 실태 조사를 벌이는 한편 양수장비를 총 동원해 물부족 해소에 나서고 있다. 또 소형농촌 용수개발과 노

지재소 스프링클러 설치 등의 대책도 함께 추진중이다. 김일태 영암군수는 지난해 29일 간부회의에서 "가을 가뭄 때문에 피해를 입는 농가가 없도록 관련 시설을 점검하고 피해 대책을 마련하라"고 관련 부서에 긴급 지시했다. 해남군도 장기적인 가을가뭄에 대비해 문내면과 산이면, 화원면, 황산면 등 겨울배추 주산지의 관정 시설을 점검 점검하는 등 대책 마련에 나서고 있다. 평균 저수율이 34%에 불과한 강진군도 상촌저수지와 임천저수지 등 주요 저수지가 평균 35%대의 저수율을 보이면서 바닥을 드러내고 있어 대책 마련에 고심하고 있다. /해남=박진표기자 lucky@



겨울배추 모종 이식

전국 생산량의 70%를 차지하고 있는 해남군의 겨울배추 모종 이식이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다. 가을 가뭄에도 겨울배추 주산지인 해남군 산이면 금송리 붉은 황토밭에 모종을 이식하는 이낙네들의 손길이 분주하다. <해남군 제공>

해남산 포기김치 첫 수출
회원농협, 뉴질랜드에 2.5t... 해외 진출 본격화
해남에서 생산되는 포기김치가 뉴질랜드 수출을 시작으로 세계 시장으로 진출한다. 해남 회원농협은 지난달 30일 회원면 영호리 김치가공공장에서 생산된 포기김치 2.5t을 뉴질랜드로 수출하기 위해 선적할 예정이다. 농협은 매달 2.5t의 김치를 뉴질랜드에 수출하게 되며 NH 무역과 연계, 유럽과 미국 동부지역 및 아시아 지역으로의 수출에 본격적으로 나설 계획이다. /해남=박진표기자 lucky@

담양 저소득층 임산부에 영양식품 제공
산전 진찰비를 전액 지원하는 등 '임산부 모시기'에 나선 담양군이 저소득층 임산부에게 영양보충 식품도 제공한다. 담양군은 기초생활 보장 수급자와 최저 생계비 120% 미만의 차상위 계층 임산부, 영유아 100여 명을 대상으로 영양플러스 사업을 추진한다. 보건소 직원들은 월 1~2회 이들의 집을 찾아가 쌀과 감자, 달걀, 우유, 미역, 김 등 '보충 식품 패키지'를 제공하고 체계적인 영양 상담도 하게 된다. 담양군은 최근 초음파와 양수 검사 등 표준 산전 관리기준이 정한 출산 전 필수 검진비용 전액을 임산부에게 지원하는 등 출산 장려를 위한 다양한 시책을 펴고 있다. /담양=장필수기자 bungy@

나주교육청 '아름드리 기동대' 호평
나주교육청이 쾌적한 교육환경 조성을 위해 '아름드리 기동대'를 운영해 성과를 거두고 있다. 나주교육청은 관내 초·중학교의 각종 교육시설을 효과적으로 개선·보수하기 위해 기능직공무원(조무원) 27명으로 '아름드리 기동대'를 조직했다. 현재 일선 학교에서는 기능직 직원이 1명에 불과해 학교 시설 정비나 보수에 어려움을 겪어 왔다. 5개 권역으로 편성된 나주교육청 '아름드리 기동대'는 배수로 청소로 비롯해 제조작업, 나무 가지치기 등 일선 학교에서 장기간 일손이 소요되는 각종 교육시설 개선사업을 도맡아 시행하고 있다. 특히 방치되고 있는 10여개소의 폐교를 대대적으로 정비해 인근 주민들로 부터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 '아름드리 기동대'는 폐교의 파손된 유리창을 교체하고 잡초제거, 교사 출입문 잠금장치 보수, 외부인 출입금지표시판 등을 집중적으로 보수했다. 서상락 나주교육장은 "학생들이 아름답고 쾌적한 학교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기동대의 활동을 지속적으로 유지시킬 계획이다"며 "각 기동대별 실적을 평가해 연말에는 시상 등 인센티브도 부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나주=최승렬기자 srchoi@

함평농협 '조합원 만남의 날' 행사
함평농협(조합장 옥부호)이 '조합원 만남의 날' 행사를 개최했다. 이날 행사는 이석형 군수, 김병원 농협중앙회 이사, 관내의 조합장, 함평읍·신광면 조합원 1천500여 명이 참석해 중극예단 공연, 새끼꼬기, 박터트리기, 떡메치기, 장기자랑, 조합원 어울림 한마당 등 조합원 상호간 우호 증진 및 만남의 장이 펼쳐졌다. 또 김춘자, 모원씨가 장수상을 수상했으며, 오영숙, 박길례씨가 효부상을 받았다. /함평=박영진기자 py4079@

장성 친환경 농공단지 조성
장성에서 전자·전기업체가 입주하는 친환경 농공단지가 조성된다. 장성군은 지난달 30일 이형 군수를 비롯해 이낙연 국회의원과 주민 등 5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동화면 남평리에서 '동화 전자 종합농공단지' 기공식을 가졌다. 동화 전자농공단지는 28만여㎡ 규모로 내년 5월까지 205억원이 투입돼 전력과 통신을 집중화하고 48%를 녹지로 조성하는 등 친환경 공원형 산업단지로 조성된다. 입주 예정인 30여개 업체 가운데 친환경 업종인 전기·전자 업체가 70% 가량 입주하도록 계획돼 친환경 산업단지의 모델이 될 것으로 군은 기대하고 있다. 현재 장성군에는 동화, 삼계농공단지 등 2곳이 있으나 분양이 완료됐으며 삼성 전자 협력업체 등 200여개의 기업체와 20여개 물류업체가 가동중이다. /장성=장필수기자 bungy@

신명인내... [Large advertisement for Shinmyeongeunna featuring a grid of text and images, likely a newspaper supplement or a large ad for a local business.]

세포를 알면 건강이 보인다... [Advertisement for a health product or service, featuring a large image of a person and text describing cellular health benefits.]